

Park, Chang-Seo

2016. 9. 2 - 9. 30

선은 단명하고 흐릿한 생은 경계에서 흐른다

양효실(미학비평)

(전략) 이번 전시 제목 <Ephemeral Lines in Life>은 파리의 작업과 신작을 아우르는 그의 주제이면서 특별하게는 신작의 제목이다. 삶에 그려진 일시적인 혹은 단명하는 선들, 이란 제목은 엄청난 시간을 노동으로서의 예술제작에 할애하는, 작업실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전형적인 작가 이후의 작가들, 즉 생각하고 의심하고 비틀고 문제를 제기하는 (개념미술)작가들의 작업을 이해하는 단서일 것이다. 실제로 전시작에서 우리는 선들, 직선이나 곡선이나 비가시적인 선들을 만나게 된다. 이 선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예의 '감상'을 통해서 알 수 없을 것이다. 작가가 제출하는 선에 대한 새로운 '정의', 선에 대한 기성의 통념이나 개념을 해체하는 작가를 이제 따라가야 한다.

작가의 작업은 그의 문장대로라면 "한계와 간극"에 대한 것이다. 그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사물이나 세계가 만나고 차이를 드러내는 경계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선택'한다. 그곳은 내적 일관성을 갖는 자아가 최소화되고 거의 무화되는 곳이고, 타자가 이쪽으로 거의 밀려들어오는 곳이고, 실재 없이 정치적 긴장과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고, 감각적 연속성을 보증하는 개념화를 생성과 차이가 차단하는 곳이고, 그렇기에 이쪽도 저쪽도 아닌 제3의 삶이 솟아나는 물렁물렁한 틈이다. 비가시적 경계에 의존하는 자율성, 정체성, 환원적 동일성이 더 이상 불가능한 곳, 다음 아닌 그 비가시적 경계가 가시화되는 곳, 따라서 차이가 동일성을, 타율성이 자율성을, 수동성이 능동성을, 동사가 명사를 압도하는 곳, 명료한 선들, 그려진 선들이 녹아버리거나 뒤죽박죽이 되거나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는 곳. 혹은 경계를 나누는 선들은 모두 "단명하는ephemeral" 곳. 작가가 고집스럽게 가리키고 드러내고 지키려는 선 아닌 선들이다.

파리에서 이루어진 퍼포먼스를 기록한 사진들인바 「불규칙한 간격Intervalle irrégulier」이나 「사라지다disparaître」 연작은 바로 그런 경계들, 영원할 것 같은 선들-개념-이 애매해지고 불규칙해지고 사라지는 경계들을 가시화하려는 작업들이다. 그는 해안선이라는 '개념', 의식에 굳건히 안착해 있는 기호, 경험적 실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관념을 해체하려는 시도로, 오직 밀려왔다 밀려가지만 하는 파도의 거품, 끝자락, 찌꺼기를 따라가며 막대기로 선을 그렸다. 해안선, 즉 사전적인 의미에서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선을 뜻하는 해안선이 가리키는 선, 의식적 기호가 가리키는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인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있는 것은 무수히 많은 선들, 끊어지고 사라지고 거품뿐이고 선 아닌 선들, 차이와 다양성의 선들이다. 해안선은 지시성(referentiality)을 상실한, 말하자면 텅 빈 기호이고, 그 자체 기표이고, 그렇기에 죽은 말이다. 작가는 자신의 느리고 고요하고 무의미한 행위, 말하자면 애써 해안선이라는 개념에 걸 맞는 해안선을 그려보려는 시도가 남기는 자국, 흔적, 찌꺼기를 기록으로 남겼다. 개념의 찌꺼기, 거기에 어찌된 생(life)이 오롯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개념이 가리키는 현실을 찾으려고 하면서, 그러나 개념으로 환원되지 않는 찌꺼기들, 잔여를 자국으로 남기면서 작가는 죽은 언어로부터 비껴나는 생의 물질성(?!), 희미하고 덧없는 물질성을 남긴다. 심지어 해안선이라는 인간적 기호들을 '밟고' 선 바다 새들의 무료하고 무미건조하고 일상적인 장면을 「불규칙한 간격」연작 이후에 사진으로 기록하고 작업으로 포섭해들임으로써, 언어가 삶에 가하는 경직되고 일방향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의 '바깥'을 가리키려고 했다. 바닷새들의 일시적 체류/휴식에 대한 '진부한' 이미지는 작가의 개념적 퍼포먼스의 맥락 안에서 새로운 '의미', 위반적 은유로 재전유된다. 저 사진은 진부한 '키치'일 것이지만 작가의 재활용 덕분에, 새로운 맥락 안에서 낯선 '의미', 모호성을 성취하게 된다. 「사라지다」는 헤어무스로 보도 블럭 위에 '사라지다'라는 동사를 쓰고 그것을 보완/보충하는 시각적 행위이자 이미지로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는 남자(작가)의 뒷모습이 상연되는 세 장의 사진이다. 이 퍼포먼스에서 보도 블럭에 쓰인 글자와 사라지는 남자 사이에는 전형적인 예술작품의 제목과 이미지 사이에서 작동하는 안정적인 의미가 자리하게 된다. 물론 바깥에 있어야 할 제목이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이미 안과 밖, 주도적 의미와 보충적 이미지 간의 위계서열도 허물어져 있다. 심지어 무스로 쓰여진 글자 자체가 사라지는 기이한 상황이 포함되면서 이 퍼포먼스, 이 상황은 더욱 불안하고 모호해진다. 행위와 언어의 일치는 언어의 휘발, 남겨진 거품의 간섭을 받는다. 사라지다란 개념을 설명해주던 남자의 행위가 장면에서 사라지고, 심지어 그 언어도 사라진 골목에서 우리 눈은 무스 찌꺼기에 쏠린다. 사라지다란 동사는 나타난 '이미지'로 인해, 즉 dis-paraître란 동사에 이미 항상 내포되어 있는 나타남과 사라짐의 동시성으로 인해, 그것을 가시화한 희박한 거품더미로 인해 사라지지 않는다. 개념은 사라지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작가는 사라짐이 남기는 것, 사라짐이 채우는 것, 없음 뒤의 있음을 제시한다. 이 있음은 고작 거품이고, 해독불가능한 '단서' - 알레고리(!) - 이고, 무의미한 내용이다.

이것은 시각화나 언어화가 불가능한, 흐릿하고 모호하고 불안한 존재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고, 그렇기에 부유하는 '생'에 대한 것이고, 비환원적 이질성들에 대한 것이다. 보완, 보충, 예시에 불모인 삶이, 감각이 겨우, 흔적으로 거기에 남은 것이다. 물론 작가가 선택하고 해체하는 단어가 '나타나다'가 아닌 '사라지다'이기에, 즉 가시성의 비가시적 전 제인바 비가시성이기에 이 장면은 개념미술의 성찰성만큼이나 감각적 '매혹'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나타남보다 사라짐이, 있음보다 없음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그렇기에 매혹시킨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생은 애매해질수록, 흐릿해질수록 더 아득하고 더 '깊어지는' 것임을.....

신작 「생에 그어진 단명하는 선들」은 모두 구글어스(google.earth)에서 찾은 38선 부근 위성사진을 모티프로 한다. 구글어스의 한반도 사진에서 작가는 휴전선을 따라 그어진 선들이 지나가는 풍경들 - 바닷가, 산, 강 - 이 흐릿하게 식별되는 배울의 이미지들을 골라 컬러로 출력했다. 그 결과 서해 바닷가나 내륙의 어느 산악지대, 강이 지나가는 지역이 풍경화'처럼', 혹은 추상화'처럼' 느껴지는 회화 '같은' 사진이 만들어졌다. 명확한 윤곽을 가진 구체적 대상이 그때 그곳에 '있(었)음'을 한 순간으로 포착해서 전달하는 사진의 존재론적 특이성은, 구체적 시간에 찍힌 부분 부분들을 이어붙인 구글의 지구 사진의 미묘한 시간성으로 대체/변화되고, 시각적인 멈과 가까움을 자유로이 끌어당길 수 있는 컴퓨터의 마우스 클릭을 조정해서 작가에게는 가장 회화처럼 보이는, 붓으로 그린 듯한, 회화적 시간성을 내포한 것 같은, 구체적 대상의 윤곽이 흐릿하게 처리된, 말하자면 시각성이 촉각성으로 대체된, 개념이 최소화되고 감각적 접촉이 일어날 것 같은 이미지를 출력했다. 이것은 재현적 회화를 대체한 '정확한' 사진들, 유령론(hauntologie, 데리다)적이고, 환영적이며, 탈-존재론적인 회화의 새로운 기법처럼 보이도록 전유한 것이다. 이 회화 같은 사진, 특정한 시계(視界)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현실을 찍은 사진, 굳이 화가의 그리기라는 행위가 없어도 컴퓨터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회화적 이미지, 이쪽의 남한 사람들이나 저쪽의 북한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없는 그러나 진짜 있는 곳을 특정한 날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 회화로 보이기에 작가는 '선택'했다. 이곳, 있다고 가정되지만 현실에서는 경험불가능한 곳, 이미 38선이나 휴전선과 같은 냉전시대를 가리키는 낡고 경화된 개념이 21세기에도 통치하는 곳, 컴퓨터의 마우스를 아무리 클릭해도 이 이상은 가까이 당겨지지 않는 이상한 곳, 아직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구글에 지도를 반출하지 않았기에 구글어스에서도 '불러한(물칠!)' 곳, 그럼에도 흐릿한 분단선이 그어져 있는 곳, 남한도 북한도 아닌 곳, 그 자체 모호한 곳, 경계, 그 경계를 명시하는 선, 흐릿한 선. 작가의 '선택'은 이런 다양한 내포들을 갖고 있다. 작가의 사유란 환원적 동일성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다. 작가의 사유는 더 많은 비환원성, 더 많은 이탈, 더 많은 파편들, 더 많은 내포들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감각적 사유이다. 그의 한가하고 게으른 사유 덕분에 사진과 회화, 정치와 예술 사이에 수많은 선들이 그어진다.

작가는 컬러 사진을 출력한 뒤 그 위에 투명한 미디움을 여러 번 칠했다. 회화처럼 보이는 사진을 더욱 회화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눈을 속이기 위해, 매혹시키기 위해, 그는 붓을 들고 유화나 아크릴 위에 덧바르는 마감재를 발랐다. 사진의 복제가능성은 회화의 붓칠에 내포된 원본성, 진품성에 포섭되고 그려지지 않은 채 붓 칠이 얹혀진 '작품'의 출현은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란 의심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 어정쩡한 완성품, 작품은 사진도 회화도 아니다. 변종이고 트릭이고 질문이고 놀이이다. 게르하르트 리히터나 마를렌스 뒤마(Marlene Dumas)와 같은 화가들은 불확실성, 모호성과 같은, 어떤 개념적 정도도 불가능한 삶의 양가성이나 역설을 담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블러링(blurring)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다. 리히터는 사진처럼 보이도록 회화를 교정하면서 흐릿한 그림을 그렸고, 뒤마는 사진을 원본으로 하되 보도사진의 재현성- 그 자체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 을 지우기 위해 블러링을 전략으로 구사했다. 두 사람은 개념적 확실성, 인식적 판단이 불가능한 삶을 보호하는데 회화를 도구로 사용했다. 박창서의 블러링은 그의 '개념'적 실천에 입각한 것이기에 즉 그리기를 통해 재현성을 위반하려는 전략이 아닌 퍼포먼스, 사진적 공정, 회화적 마감을 빌려서 성찰적 사유를 지속하기 위해 동원되고, 물론 그것이 그가 이해하는 바 삶의 진실에 충실하려는 방법임은 당연하다. 그는 "읽히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읽히기에의 거부는 정확한 이해와 개념화가 통치하는 현세에 대한 '정치적' 대응전략이다. 명확한 읽기, 선명한 읽기가 폭력이라는 근대 이후의 비판적 인식이 그의 작업방식 저변에 깔려 있다.

그의 회화적 사진, 회화적 공정이 가미된 사진에는 줄곧 분단선이 그어져 있다. 그것이 회화 같은 사진의 회화적 감상을 차단한다. 외적 풍경이건 심적 풍경이건 회화적 이미지에 대한 감상은 화면을 가로지르는 선들, 인공적으로 그어진 선들로 인해 차단된다. 이것은 종합적 감상에 대한 분석적 개입이고 자연 풍경에 기하학적 분할로 개입하는 '낯설게 하기'의 전략이다. 즉 이것은 예술이면서 예술이 아닌 것이다. 이 희미하게 그어진 선 하나로 인해 전체, 감상을 위한 내부가 쪼개진다. 작가는 분단을 고지하는, 엄연히 구글어스 사진에 실재하는, 자연주의적 풍경에 그어진 인공적이고 역사적인 선을 회화에 대한 개입과 전복을 위한 단서로 사용한다. 그렇기에 그의 연작 「생에 그어진 단명하는 선들」도 「사라지다」와 마찬가지로 수렴이 아닌 확산, 종합이 아닌 분석, 환원이 아닌 이탈에 충실해진다. 저 선은 한반도를 통치하는 냉전이데올로기의 '도상'이고, 풍경에 더 깊숙이 더 안으로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정치적 상징이다. 우리는 제도로서의 예술, 혹은 감상이라는 안정화 전략이 통치하는 제도예술에 대한 작가의 자의식적 비판을 읽을 뿐 아니라, 오래도록 떠나있던 모국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바깥'을 떠돌고 있는 작가가 마주치는 비가시적 선들, 심적 이방인으로서의 그의 표류를 읽게 된다. 안에서 밖을 사는 자, 보이는 것이라고는 "한계와 간극"인 그런 자의 성실하고 집요한 읽기, 그리고 미세한 감각(하기).

단명하는 선들은 영원히 이어지거나 곧게 한 방향이거나 정확한 직선이 아니다. 단명하는 선들은 들쭉날쭉하고 바다와 강에서 휴전선이 그렇듯 갑자기 끊어지고 모여 있는 갈매기들이 딛고 있는 선처럼 면적이고 방금 저쪽으로 사라진 사람이 남긴 흔적처럼 열게 현존한다. 단명하는 선들은 나누는 선이 아니라 침투하는 선이고, 동의하는 선이 아니라 의심하는 선이고, 상징적 기호가 아닌 감각적 이미지이고, 잘 보이면서도 안 보이는 선들이다. 불규칙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사라지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선들, 단명하는 선들, 작가가 보는 생의 이미지들이다. 마지막 작가와의 통화를 인용하자면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시골집의 논두렁"이 그 선들이다. 그의 작업이 연원한 생의 구체적 감각들, 그가 작업에서 기억하고 복원하려는 선들이다. 그리고 그의 늙은 아버지가 일생 밟고 지나다녔던 논두렁이다. 농부인 아버지, 화가의 꿈을 꾸던 그의 20대, 결국 예술가로 불리게 된 그가 찾아내고 들어가 있으려고 하는 경계, 개념에 잠식당한 머릿 속에서라면 도통 지워지지 않을 직선과의 싸움, 흐릿하고 희박한 것들로 채워져야 할 생애의 임무, 부정을 통해서 요청되고 보유했던 생애의 긍정.....